

CONTENTS

1. 국내펀드 동향
2. 해외펀드 동향
3. 현금유출입 동향
4. 변액보험

〈국내펀드〉

중소형주 상승에 국내주식형펀드 6.65% 상승

〈해외펀드〉

해외주식펀드 3분기 7.29% 상승, 유럽주식펀드 강세

〈현금유입〉

MMF로 자금 대거 유입, 주식형 순유출

〈변액보험〉

변액보험, 자산운용사 펀드성과 하회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2015년 1분기 국내펀드 동향

중소형주 상승에 국내주식형펀드 6.65% 상승

주식형 펀드 성과

국내주식형 펀드
6.65%

그리스의 구제금융 합의와 ECB의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양적완화 시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상향 전망 등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1분기 국내주식형 펀드는 상승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4월 1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국내주식형펀드는 2015년 1분기 동안 6.65% 상승했다. 소유형 기준으로는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중소형주식펀드가 11.59%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고,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와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 등으로 배당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며 연초 이후 상승 랠리를 지속한 배당주식펀드는 6.74%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일반주식펀드는 6.66%, K200인덱스펀드는 5.24% 상승했다.

중소형주식펀드
성과 호조

또한, 코스닥지수는 정부가 내놓은 각종 구조개혁과 내수 활성화 정책이 호재로 작용하며 6년 9개월만에 640.08pt를 기록했고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형주가 20.71%, 중형주가 15.66% 수익률을 보였고, 대형주가 4.74% 상승했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금속 광물제품, 증권, 의약품 등의 업종 상승률이 두드러졌으며, 보험업, 은행, 운수장비업 등의 업종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주식형펀드 외에,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4.35%, 2.8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절대수익추구형 펀드인 채권알파펀드와 시장중립펀드는 1분기 동안 각각 1.00%, 0.65% 상승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했으며 공모주하이일드펀드는 0.27%의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주식형		2,695	555,999	2.52	6.65	0.88	2.55
	일반주식	1,496	241,689	2.67	6.66	0.32	3.11
	중소형주식	164	20,244	2.82	11.59	5.72	19.28
	배당주식	194	57,467	1.68	6.74	0.31	9.86
	K200인덱스	256	128,971	2.19	5.24	1.44	0.91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210	27,033	1.72	4.35	1.46	3.43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544	88,683	0.90	2.80	1.27	4.73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29	15,060	0.31	1.00	2.86	5.16
	시장중립	103	6,576	0.46	0.65	-0.21	1.98
	공모주하이일드	20	7,242	-0.22	0.27	11.49	14.97
KOSPI				2.78	6.55	1.04	2.79
KOSDAQ				4.15	19.80	13.48	20.11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개별 주식 펀드

순자산액(클래스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1,698개 국내주식형 펀드 중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한 펀드는 1,681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상회한 펀드는 92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펀드 성과상위**

중소형주의 급등세에 힘입어 중소형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분기성과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운수장비업, 은행 업종 투자 펀드들은 분기성과 하위권에 머물렀다.

KRX 증권지수(KRX Securities Index)를 추적대상지수로 추종하는 ‘삼성KODEX증권주증권상장지수[주식]’ 펀드가 분기성과 27.89%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중소형주 종목에 투자하는 중소형주식펀드들이 다수 자리했다. ‘마이다스미소중소형주(주식)A’ 펀드도 22.07%의 우수한 수익률로 2위를 차지했고, ‘현대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자1(주식)A1’ 펀드와 ‘IBK중소형주코리아자[주식]C1’펀드는 각각 21.99%, 21.47% 수익률을 기록했다.

**보험업, 은행, 운수장비
업 성과 최하위**

반면, 운수장비업의 하락세로 KRX Autos지수를 추종하는 ‘삼성KODEX자동차상장지수[주식]’펀드는 5.13% 하락해 분기성과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한, 현대차그룹 주식 등에 집중투자하는 ‘대신GIANT현대차그룹 상장지수형[주식]’펀드도 2.41% 하락했다. 이어 은행업종에 투자하는 ‘삼성KODEX은행 상장지수[주식]’펀드도 1.40% 하락하며 저조한 성과로 하위 펀드에 다수 자리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1분기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분기	1년
삼성KODEX 증권주증권상장지수[주식]	230	기타인덱스	13.66	27.89	51.46
마이다스미소중소형주(주식)A	88	중소형주식	7.13	22.07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자 1(주식)A1	318	중소형주식	4.51	21.99	37.04
IBK중소형주코리아자[주식]C1	44	중소형주식	6.02	21.47	30.54
삼성KODEX 건설상장지수[주식]	118	기타인덱스	2.68	21.25	-2.83
동부바이오헬스케어 1[주식]Class A	164	테마주식	4.55	20.90	23.94
NH-CA대한민국No.1중소형주[주식]Class A1	17	중소형주식	6.35	19.49	28.17
KB배당포커스자(주식)A Class	60	배당주식	5.75	18.30	18.02
유리스몰뷰티자[주식]_C/C	160	중소형주식	7.73	17.81	12.55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상장지수[주식]	804	기타인덱스	9.82	17.34	21.17

국내 주식형 펀드 1분기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분기	1년
삼성KODEX 자동차 상장지수[주식]	170	기타인덱스	-0.34	-5.13	-22.19
대신GIANT 현대차그룹 상장지수형[주식]	135	기타인덱스	1.36	-2.41	-20.34
삼성KODEX 은행 상장지수[주식]	243	기타인덱스	-1.52	-1.40	-10.70
프랭클린그로스(주식) 4	127	일반주식	0.76	-1.37	-14.53
프랭클린그로스(주식) 5	290	일반주식	0.80	-1.26	-14.21
현대현대그룹플러스 1[주식]종류A	605	테마주식	1.08	-1.11	-10.89
미래에셋TIGER 은행상장지수(주식)	158	기타인덱스	-1.31	-1.02	-9.49
미래에셋TIGER 경기소비재상장지수(주식)	195	기타인덱스	0.81	-0.44	-16.66
신한BNPP기업지배구조자(주식)(종류A1)	164	일반주식	1.34	0.32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전환 1(주식) C	7,173	일반주식	-0.09	0.73	-3.00

주1) 1분기 수익률순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클래스합산) 이상, 3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채권형 펀드 성과

국내채권형 펀드
1분기 1.44%
성과 기록

2015년 1분기 국내 채권시장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1%대에 진입했다. 이에 국내채권형 펀드는 같은 기간 1.44%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초 유가 급락세와 그리스 정정 불안 지속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증가하고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발표가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 심리를 자극하며 중장기물 채권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세로 이어졌다.

중기채권펀드
2.09%

만기에 상관없이 모든 국고채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소유형 기준 일반중기채권펀드가 2.09%의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

우량채권펀드
1.47%

우량채권펀드와 일반채권펀드는 각각 1.47%, 1.39% 수익률을 기록했다. 초단기채권펀드는 0.63%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국내 채권형 유형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채권형		319	129,959	0.74	1.44	2.41	5.26
	일반채권	136	22,235	0.73	1.39	2.32	5.00
	초단기채권	25	42,182	0.28	0.63	1.17	2.59
	중기채권	108	51,887	1.10	2.09	3.41	7.20
	우량채권	50	13,656	0.83	1.47	2.41	5.12
	하이일드채권			0.34	0.73	1.37	3.01
KIS채권지수(1년 종합)		195	983,505	0.16	0.48	1.02	2.25
MMF	MMF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개별 채권 펀드

중기채권펀드 강세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202개 채권형 펀드 중 모든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채권지수인 KIS채권지수(1년) 상승률(0.69%)을 초과한 펀드는 1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물 강세인 채권시장에서 중기채권펀드가 1분기 성과 상위를 대부분 차지했다.

레버리지 채권펀드인 '키움KOSEF10년국고채레버리지상장지수[채권-파생]'펀드가 1분기 7.87%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해당 펀드는 'KIS KTB 10Y Index (KIS 10년 국고채 지수)'의 2배를 추종하고 있어서 성과가 우수했다.

소유형 기준 또 다른 중기채권펀드인 '키움KOSEF10년국고채상장지수[채권]'펀드가 4.18%, NH-CA Allset국채10년인덱스자[채권]Class A'펀드가 4.02%의 수익률로 2,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초단기채권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상장지수(채권)'펀드와 '한국투자KINDEX단기자금상장지수(채권)'펀드가 각각 0.51%, 0.54%의 수익률로 1분기 성과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 1분기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분기	1년
키움KOSEF10년국고채레버리지상장지수[채권-파생]	160	중기채권	3.33	7.87	28.11
키움KOSEF10년국고채상장지수[채권]	211	중기채권	1.84	4.18	14.31
NH-CA Allset국채10년인덱스자[채권]Class A	303	우량채권	1.69	4.02	
삼성ABF Korea인덱스[채권](A)	3,529	중기채권	1.47	3.13	10.17
미래에셋엡브렐러(채권)종류C-i	106	중기채권	1.38	2.88	9.45
미래에셋퇴직플랜자 1(채권)종류C	549	중기채권	1.41	2.84	9.56
미래에셋개인연금 전환 1(채권)	157	중기채권	1.34	2.71	9.16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자 1(채권)종류F	16	우량채권	1.26	2.62	8.61
한화연금전환KM 1[국공채]	107	중기채권	1.33	2.62	8.70
한국투자퇴직연금자 1(국공채)	1,313	우량채권	1.18	2.49	8.19

국내 채권형펀드 1분기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분기	1년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상장지수(채권)	5,253	초단기채권	0.19	0.51	2.31
한국투자KINDEX 단기자금상장지수(채권)	1,167	초단기채권	0.22	0.54	2.36
KB KStar단기통안채상장지수(채권)	1,593	초단기채권	0.27	0.60	
삼성KODEX 단기채권상장지수[채권]	12,278	초단기채권	0.27	0.61	2.56
키움KOSEF단기자금상장지수[채권]	1,460	초단기채권	0.28	0.63	2.58
한화ARIRANG 단기유동성상장지수(채권)	2,173	초단기채권	0.29	0.64	2.68
한화단기국공채(채권) 종류C	6,957	초단기채권	0.30	0.66	2.96
키움단기국공채플러스 1[채권]A1	408	초단기채권	0.31	0.67	
키움단기국공채자 1[채권]C1	8,468	초단기채권	0.32	0.67	2.80
IBK그랑프리단기채[채권]	516	일반채권	0.33	0.67	2.79

주1) 1분기 수익률순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클래스합산) 이상, 3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주식 상황

코스피 6.55% 상승
코스닥 19.80% 상승

대형주 4.74%
중형주 15.66%
소형주 20.71%

2015년 1분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 여건 하에 글로벌 증시 모두 강세를 유지했다. 특히, 1분기 한국 기업이이익이 4년 만에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흥국 중 한국으로 외국인의 유동자금이 모이면서 외국인과 국내 연기금의 주식 순매수세가 형성되며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6.55%, 19.80% 상승했다.

연초 그리스의 정정 불안과 유가급락 등 대내외적 악재가 코스피증시를 위협했으나 그리스의 구제금융합의와 ECB의 양적완화 시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로 힘입어 코스피증시와 코스닥증시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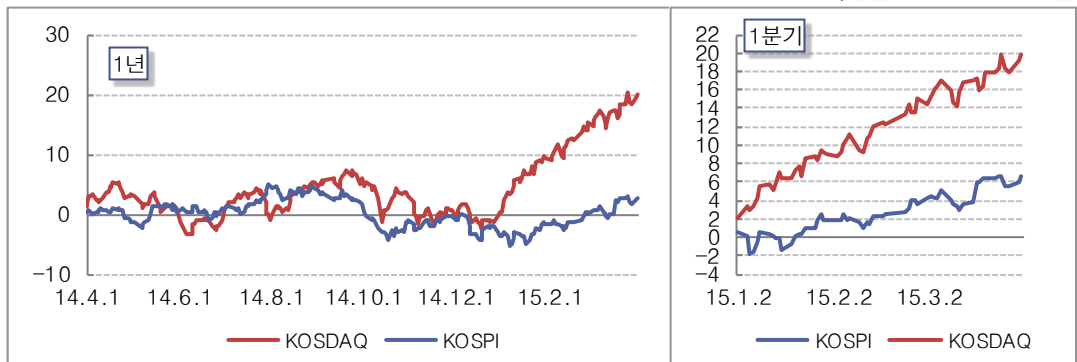
업종별 수익률은 비금속광물(33.33%), 증권(31.48%), 의약품(30.10%), 종이목재(26.76%) 업종 순으로 강세를 보였고, 보험업(-11.14%), 은행(-6.93%), 운수창고업(-4.58%) 업종 순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코스피대형주가 4.74%, 중형주 15.66%, 소형주 20.71% 수익률을 나타내며 경기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대체할 투자처로 부각되며 강세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속되며 동 기간 19.80% 상승했고, 6년 9개월만에 640.08pt를 기록하며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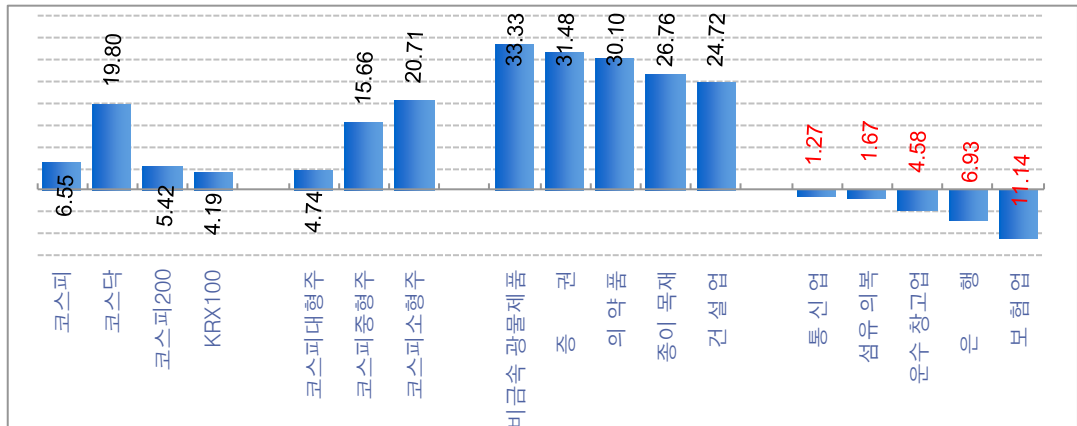
국내 주가지수 추이 (1년)

기준일 : 2015년03월31일



거래소 주요 지수 및 업종별 상하위 1분기 수익률

기준일 : 2015년03월31일



자료 : KOSCOM

채권 시장

1분기 채권시장 강세

2015년 1분기 국내 채권시장은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고,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3월 FOMC 결과로부터 한국 채권 강세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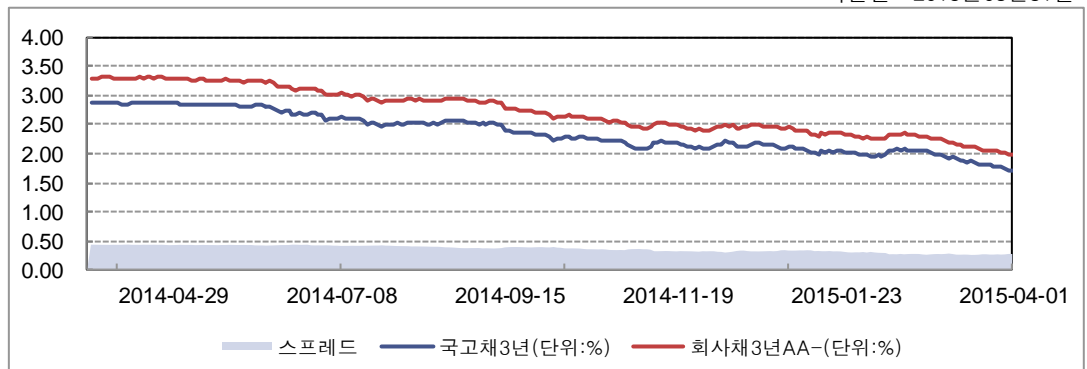
연초 유가 급락세와 그리스 정정불안 지속 등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되다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를 보이며 등락을 거듭하던 국내 채권시장은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세 영향으로 만기에 상관없이 모든 채권이 강세를 나타냈다.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 걸쳐 하락했다. 국고채 1년물은 0.37%p 하락한 1.71%, 3년물은 0.38%p 하락한 1.72%, 5년물은 0.48%p 하락한 1.80%를 기록했다.

[박주영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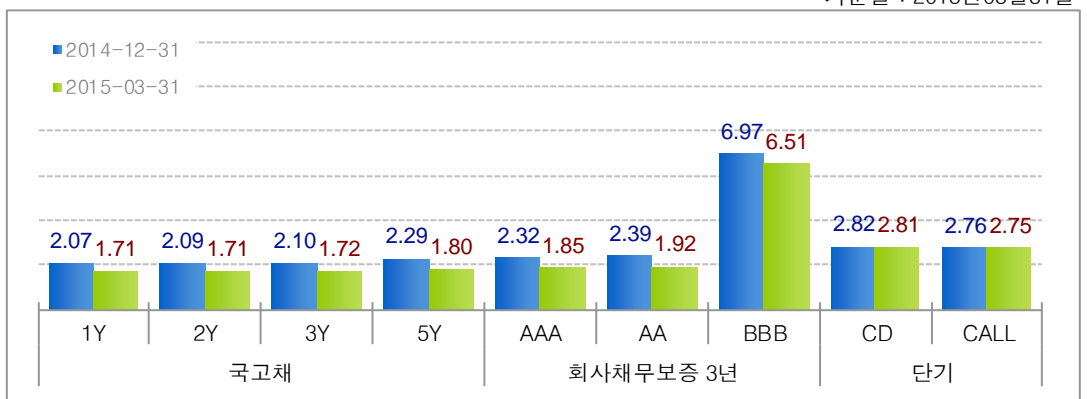
국내 주요 채권금리 추이(1년)

기준일 : 2015년03월31일



월간 채권 금리 동향

기준일 : 2015년03월31일



자료:이데일리

2015년 1분기 해외펀드 동향

해외주식펀드 1분기 7.29% 상승, 유럽주식펀드 강세

1분기 해외주식형 펀드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연초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실시할 양적완화(QE) 등의 호재로 상승세를 보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합의 및 美 연준의장의 금리인상 유보 발언이 투자심리를 고무시키며 해외주식형 펀드는 지난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해외주식형펀드 1분기 수익률 7.29%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4월 1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1분기 해외주식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7.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유형 기준으로 커머더티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들이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이 각각 2.97%, 2.80%로 강세를 보였고, 해외채권형과 해외부동산형 역시 1.51%, 1.53%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금, 원유, 농산물 관련 선물에 투자하는 커머더티형 펀드는 원자재값 하락에 4.51% 하락하며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해외주식형		2,389	172,438	3.51	7.29	14.80	20.21
	글로벌주식	165	16,567	0.87	5.48	9.37	12.89
	글로벌신흥국주식	227	16,068	-1.33	2.96	1.57	4.55
	유럽주식	147	12,871	3.32	16.45	17.25	17.78
	북미주식	140	5,332	-0.56	2.83	8.32	14.97
	아시아태평양주식	28	490	1.25	6.55	8.60	16.85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113	11,075	3.45	8.35	10.94	14.35
	동남아주식	73	1,862	-1.61	0.49	-2.39	3.15
	아시아신흥국주식	88	6,375	2.43	8.19	14.02	21.93
	유럽신흥국주식	48	1,147	-2.90	3.51	-13.90	-13.71
	남미신흥국주식	53	1,348	-6.90	-9.66	-21.40	-20.70
	프론티어마켓주식	30	275	-4.09	-1.45	-13.74	-4.65
	일본주식	94	2,875	3.20	11.38	17.31	30.08
	중국주식	711	81,732	7.04	8.88	25.48	32.81
	인도주식	82	3,222	-0.32	8.22	15.14	36.43
	브라질주식	48	794	-9.36	-15.01	-24.47	-26.58
	러시아주식	52	2,213	-0.95	13.33	-16.91	-16.18
	에너지섹터	57	736	0.78	4.81	-5.64	-5.01
	기초소재섹터	66	2,078	-8.20	-5.41	-18.45	-23.15
	소비재섹터	19	237	2.32	8.29	15.30	14.19
	헬스케어섹터	31	2,938	3.03	12.30	24.86	41.71
	금융섹터	34	513	0.43	1.29	7.36	9.24
	멀티섹터	52	1,105	0.75	1.41	3.78	6.49
해외주식혼합형		239	25,048	-0.46	2.97	4.88	9.33
해외채권혼합형		198	8,652	0.95	2.80	4.17	6.83
해외채권형		393	51,209	0.20	1.51	1.30	3.03
해외부동산형		70	9,602	0.30	1.53	3.30	6.98
커머더티형		104	7,202	-3.11	-4.51	-9.47	-19.67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을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합계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해외주식펀드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주식펀드가 1분기 동안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고, 정전협정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증시상승에 힘을 실었다. 권역별로는 유럽주식펀드가 16.4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아시아태평양주식(ex J)펀드가 8.35%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브라질주식펀드(-15.01%)를 포함하는 남미신흥국주식펀드가 9.66% 하락하며 부진한 성과를 나타냈다.

유럽주식펀드 16.45%	유럽주식펀드가 1분기 동안 16.45% 상승하며 권역별 해외펀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이 시장기대 이상의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증시는 급등세를 연출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볼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 및 유럽국가의 경제지표 호조로 유럽증시는 지난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일본주식펀드 11.38%	일본주식펀드는 2월 한달 간 6.85% 상승하며 1분기를 11.38%의 수익률로 마감했다. 일본의 전년 4분기 경기지표 호조와 엔화가치 약세가 호재로 작용하며 일본증시는 상승세를 연출했다. 여기에 미연준의(Fed) 조기 금리인상 우려 완화 및 일본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소식이 증시에 주요하게 작용하며 닛케이225지수 또한 2000년 4월 이후 최고치인 19,500선을 상승 돌파하기도 했다.
러시아주식펀드 13.33%	러시아주식펀드는 13.3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개별국가에 투자하는 펀드 중 가장 우수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리스크가 진정되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휴전협정이 발효되며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에 MSCI러시아지수는 1분기 동안 15.71%의 등락률을 기록했고, 러시아 비중이 높은 유럽신흥국주식펀드도 3.51% 상승했다.
중국주식펀드 8.88%	중국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중국주식펀드는 3월 한달 간 7.04% 상승했다. 연초 중국증시는 감독당국의 신용거래 조사와 위안화 약세 영향으로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후 중국정부의 추가 통화정책 실시와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중국본토와 홍콩증시는 모두 큰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에 중국주식펀드는 1분기 동안 8.8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난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도주식펀드 8.22%	인도주식펀드는 1분기 동안 8.2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승세에 동참했다. 연초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발표와 더불어 IMF와 세계은행(WB)의 인도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인도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후 인도증시 고평가 우려와 외국인의 순매도 확대, 기업실적 부진 등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
북미주식펀드 2.83%	미국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합의와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세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美 연준의장의 금리인상 유보 발언이 투자심리를 개선시켰고, 중국의 금리 인하, 미국의 제조업지표 개선등으로 DowJones지수와 S&P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분기 북미주식펀드는 2.83% 상승하며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헬스케어섹터 12.30% 소비재섹터 8.29%	섹터별로 살펴보면 기초소재섹터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국내외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헬스케어섹터펀드가 12.30%의 수익률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고, 소비재섹터와 에너지섹터도 각각 8.29%, 4.81% 상승했다.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기초소재섹터펀드는 -5.41% 하락하며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기초소재섹터-5.41%	

개별 해외 펀드 성과

**1,230개 해외주식펀드
중 1,078개 펀드 플러스
성과**

순자산액(클래스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3개월 이상인 1,230개 해외주식펀드 중 1,078개 펀드가 플러스 성과를 보였다. 중국주식펀드와 유럽 및 일본주식펀드가 상위권에 다수 올랐고, 브라질주식펀드와 남미신흥국주식펀드, 기초소재섹터펀드 등이 하위권에 자리했다.

**미래에셋TIGER합성-차이나A레버리지상장지수
(주혼-파생재간접)
36.76%**

최근 중국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중국주식펀드가 상위권에 다수 자리했다. '미래에셋TIGER합성-차이나A레버리지상장지수(주혼-파생재간접)'펀드가 1분기 동안 36.76% 상승하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중국 본토에 투자하지만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자UH[주식]_C1'펀드가 30.95% 급등하며 분기성과 1,2위에 자리했다.

**신한BNPP봉쥬르브라질
자(H)[주식](종류A1)
-15.52%**

중국주식펀드 외에 일본 TOPIX 지수 일간 변동성의 2배를 추종하는 'KB KStar일본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재간접파생)(H)'펀드가 분기성과 21.07%를 달성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헬스케어섹터펀드인 '삼성KODEX합성-미국 바이오테크상장지수[주식-파생]'펀드도 20.63%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신흥국의 증시가 부진하면서 관련 펀드들이 하위권에 자리했다. '신한BNPP봉쥬르브라질자(H)[주식](종류A1)'펀드가 -15.52%의 수익률을 보이며 1분기 최하위를 기록했다. 'JP모간브라질자(주식)A',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펀드도 각각 -15.34%, -14.98%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임현희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해외 주식형 펀드 1분기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분기	1년
미래에셋TIGER합성-차이나A레버리지상장지수(주혼-파생)	1,447	중국주식	32.71	36.76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자UH[주식]_C1	79	중국주식	18.34	30.95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자H[주식]_A	740	중국주식	17.51	30.70	
동부차이나본토자(H)[주식]ClassC-F	394	중국주식	10.98	24.04	55.86
KB KStar일본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재간접파생)(H)	122	일본주식	3.95	21.07	
삼성KODEX 합성-미국 바이오테크상장지수[주식-파생]	408	헬스케어섹터	4.10	20.63	68.42
도이치독일(주식-재간접) Cls A	92	독일주식	5.36	20.52	23.92
KB스타유로인덱스자(주식-파생)A	691	유럽주식	4.52	19.16	21.43
KB중국본토A주자(주식)A	802	중국주식	13.87	18.70	70.57
KB연금중국본토A주자(주식)C 클래스	115	중국주식	13.88	18.66	

해외 주식형 펀드 1분기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1분기	1년
신한BNPP봉쥬르브라질자(H)[주식](종류A1)	63	브라질주식	-10.60	-15.52	-27.39
JP모간브라질자(주식)A	128	브라질주식	-8.96	-15.34	-26.11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	171	브라질주식	-9.36	-14.98	-29.02
KB브라질 자(주식)A	81	브라질주식	-8.04	-13.68	-23.43
미래에셋라틴인덱스 1(주식)종류A	102	남미신흥국주식	-9.38	-11.56	-24.71
슈로더라틴아메리카자A(주식)종류A	292	남미신흥국주식	-7.12	-9.52	-20.93
신한BNPP봉쥬르중남미플러스자(H)[주식](종류A 1)	501	남미신흥국주식	-6.22	-9.28	-20.39
JP모간천연자원자(주식)A	376	기초소재섹터	-6.54	-7.19	-25.05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재간접)(H)(A)	657	기초소재섹터	-8.98	-6.76	-25.60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	62	유럽신흥국주식	-8.02	-6.58	-16.02

주1) 1분기 수익률순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클래스합산) 이상, 3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2015년 1분기 현금입출입 동향

MMF로 자금 대거 유입, 주식형 순유출

공모펀드 자금동향

1분기 공모펀드 설정액
(ETF, 재투자 제외)
16조 6917억원 증가

MMF 18조 6234억원
혼합형 7187억원
채권형 5431억원
설정액 증가

2015년 1분기 공모펀드는 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금이 유입됐고 현금흐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MMF로의 자금 유입이 컸고 해외는 해외주식형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현금흐름 또한 MMF와 해외주식형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의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펀드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4월 1일 현재 205조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동안 16조 6917억원의 설정액(ETF, 재투자 제외)이 증가했고, 실제 현금흐름으로는 17조 5098억원이 증가했다.

국내 공모펀드 전체로는 1분기 동안 16조 6317억의 설정액이 증가됐다. MMF로 가장 큰 규모인 18조 6234억원의 자금이 증가되었고 혼합형으로도 8163억원이 유입됐다. 채권형과 기타에서도 각각 7500억원, 102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주식형에서는 3조 6600억원이 유출되었다.

해외 공모펀드는 600억원의 설정액이 유입됐고 현금흐름은 3274억원 증가됐다. 주식형과 기타에서 자금유입이 나타난 반면 혼합형과 채권형에서 자금유출을 보였다.

공모펀드 유형별 1분기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주식형	5,548	636,860	-33,633	614,738	30.17	-27,806
혼합형	1,972	191,809	7,187	196,123	9.63	7,705
채권형	795	148,391	5,431	150,868	7.41	5,715
MMF	208	997,011	186,234	1,006,786	49.42	188,410
기타	770	76,326	1,697	68,840	3.38	1,074
총계	9,293	2,050,397	166,917	2,037,355	100.00	175,098
국내주식형	2,894	451,362	-36,600	438,457	21.52	-33,742
국내혼합형	1,461	158,573	8,163	162,307	7.97	8,651
국내채권형	339	97,518	7,500	100,108	4.91	7,685
국내MMF	208	997,011	186,234	1,006,786	49.42	188,410
국내기타	458	45,503	1,020	41,215	2.02	820
국내소계	5,360	1,749,965	166,317	1,748,873	85.84	171,824
해외주식형	2,654	185,498	2,967	176,281	8.65	5,936
해외혼합형	511	33,236	-976	33,816	1.66	-946
해외채권형	456	50,873	-2,069	50,761	2.49	-1,970
해외기타	312	30,824	677	27,625	1.36	255
해외소계	3,933	300,431	600	288,482	14.16	3,274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ETF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주3) 혼합형은 국내외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을 포함

주4) 기타는 국내외 기타, 부동산형, 커머더티형을 포함

국내 주식펀드 자금동향

**국내주식형펀드 설정액
3조 6600억원 증가**

국내주식형 펀드 설정액(ETF, 재투자 제외)은 1분기 동안 3조 6600억원이 감소한 45조 1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현금흐름도 3조 3742억원 유출됐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주식펀드와 기타인덱스펀드 설정액이 각각 2조 3487억원, 6387억원 감소해 지난 4분기 대비 8.35%, 24.17% 비중이 줄었다. K200인덱스펀드도 지난 분기 대비 4632억원 감소했다.

**일반주식펀드
2조 3487억원
설정액 감소**

국내주식펀드 중 56% 가까이를 차지하는 일반주식펀드는 24조 476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인덱스와 K200인덱스에서 순자산이 감소됐고, 배당주식펀드와 테마주식펀드에서도 각각 1204억원, 359억원의 유출이 나타났다.

개별 펀드별로 살펴보면, 대표클래스펀드 기준(클래스펀드 합산)으로 'KB밸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A'펀드가 2470억원의 현금흐름이 줄어들면서 국내주식펀드 중 분기 자금유출 규모 최상위에 자리했다. 이 펀드는 1분기 동안 6.32% 상승하며 유형평균을 0.34%p 하회하는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외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A)'펀드와 'NH-CA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 A'펀드도 각각 1680억원, 1500억원 감소하며 뒤를 이었다.

국내주식펀드 소유형별 1분기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일반주식	1,646	254,053	-23,487	244,767	55.82	-21,715
중소형주식	186	18,547	-165	20,266	4.62	-125
배당주식	203	54,274	-1,188	57,657	13.15	-1,204
테마주식	386	54,835	-741	49,430	11.27	-359
K200인덱스	271	49,610	-4,632	48,670	11.10	-4,539
기타인덱스	202	20,043	-6,387	17,668	4.03	-5,800
총 계	2,894	451,362	-36,600	438,457	100.00	-33,742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ETF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해외 주식펀드 자금동향

해외주식형 설정액
(ETF, 재투자 제외)
3011억원 증가

해외주식펀드 설정액(ETF, 재투자 제외)은 1분기 동안 3011억원 증가한 18조 5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현금흐름도 5968억원 유입됐다.

유럽주식펀드
글로벌주식펀드
자금유입

1분기 동안 유형성과가 양호한 유럽주식펀드와 글로벌주식펀드에서 설정액과 현금흐름이 모두 증가했다. 유럽주식펀드에서 설정액이 4237억원 증가되면서 올해 1월초 대비 54.79% 늘어났고 현금흐름도 4853억원 증가했다. 글로벌주식펀드도 지난 4분기 대비 1353억원의 설정액이 증가했고, 현금흐름도 1574억원 늘어나 1월초 대비 10.79%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주식펀드와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에서 각각 3570억원, 2035억원의 설정액이 줄었고, 아시아신흥국주식펀드에서 664억원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주식펀드 소유형별 1분기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권역별						
글로벌주식	207	14,939	1,353	16,166	9.19	1,574
유럽주식	161	11,970	4,237	12,808	7.28	4,853
북미주식	150	4,500	562	4,728	2.69	550
아시아태평양주식	31	502	-41	506	0.29	-39
아-태주식(ex J)	137	10,667	475	11,114	6.32	581
동남아주식	88	1,955	-139	1,877	1.07	-147
글로벌신흥국주식	245	20,385	-2,035	16,066	9.13	-1,621
아시아신흥국주식	94	6,624	-664	6,391	3.63	-615
유럽신흥국주식	55	2,410	-159	1,153	0.66	-76
남미신흥국주식	52	2,307	-142	1,313	0.75	-80
프론티어마켓주식	33	338	-19	276	0.16	-16
기타신흥국주식	3	5	-1	3	0.00	-0
섹터별						
에너지섹터	58	1,159	173	736	0.42	157
기초소재섹터	66	5,040	118	2,078	1.18	53
소비재섹터	19	226	-39	237	0.13	-40
헬스케어섹터	36	1,925	1,045	2,422	1.38	1,252
금융섹터	33	471	-45	396	0.22	-41
공공서비스섹터	1	10	-2	11	0.01	-2
멀티섹터	62	1,115	-17	1,119	0.64	-13
국가별						
일본주식	113	3,048	477	2,611	1.48	468
호주주식	2	3	-1	3	0.00	-1
중국주식	759	84,172	-3,570	87,583	49.77	-1,456
인도주식	90	3,077	234	3,151	1.79	249
브라질주식	56	1,711	-25	797	0.45	-11
러시아주식	57	6,297	1,244	2,215	1.26	390
타이완주식	8	6	-1	6	0.00	-2
말레이시아주식	2	4	-0	4	0.00	-0
독일주식	5	92	3	112	0.06	11
기타국가주식	26	132	-12	98	0.06	-9
총 계	2,649	185,090	3,011	175,981	100.00	5,968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ETF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2015년 1분기 신규 설정 펀드

449개 펀드 신규설정
전체 설정액
2조 1102억원

1분기 동안 449개 펀드가 신규설정되었으며, 이들 펀드의 설정액은 2015년 4월 1일 기준 2조 110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국내펀드 설정액은 1조 6180억원, 해외펀드 설정액은 4922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설정된 공모펀드의 총 설정액 중 주식형펀드가 5016억원으로 전체 설정 규모의 23.7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펀드(특별자산 및 ETF포함) 설정액은 9162억원으로 43.42%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채권혼합형펀드와 절대수익추구형펀드도 각각 3296억원, 2397억원으로 전체 설정 규모의 15.62%, 11.36%를 차지했다.

신규설정펀드 중 1월 5일에 설정된 '교보약사파워글로벌인덱스자(H)[주혼-파생]ClassA-F'펀드가 설정액 1053억원으로 1분기 설정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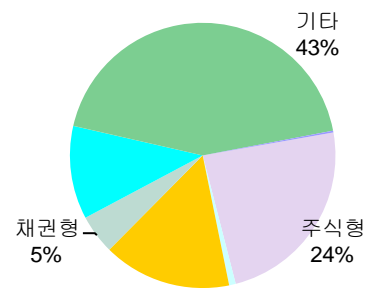
[임현희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1분기 신규펀드 설정현황 (공모)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국내투자		해외투자		전체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주식형	1,420	43	3,596	156	5,016	199
주식혼합형	28	5	143	18	171	23
채권혼합형	3,187	60	109	10	3,296	70
채권형	406	6	607	42	1,013	48
절대수익추구형	2,397	18			2,397	18
부동산형			2	3	2	3
MMF						
기타	8,742	68	420	19	9,162	87
커머더티형			45	1	45	1
운용사 전체	16,180	200	4,922	249	21,102	449



주1) 제로인 유형 분류 체계에 의함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유형내 ETF는 제외, 클래스 펀드 기준 산출

주3) 2013년 3분기 동안 설정된 펀드로 설정액은 10월 1일 기준임

주4) CDS관련 과거성과연결 클래스펀드는 제외.

1분기 신규설정 공모펀드 설정액 상위 펀드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펀드유형
교보약사파워글로벌인덱스자(H)[주혼-파생]ClassA-F	교보약사운용	20150105	1,053	해외주식형
NH-CA Allset모아모아30[채혼]ClassCi	NH-CA운용	20150102	1,000	채권혼합형
KTB공모주분리파세하이일드[채혼]종류A	KTB운용	20150216	946	절대수익추구형
KTB공모주분리파세하이일드[채혼]종류C	KTB운용	20150216	659	절대수익추구형
신한BNPPHE- 7[ELS-파생]	신한BNPP	20150330	549	기타
하이지수연계HE- 1[ELS-파생]	하이운용	20150323	449	기타
NH-CA Allset모아모아15[채혼]ClassA	NH-CA운용	20150102	447	채권혼합형
하이미래설계HE- 7[ELS-파생]	하이운용	20150323	424	기타
신한BNPP미래설계HE- 6[ELS-파생]	신한BNPP	20150223	414	기타
하나UBS 파워중기채권자[채권]ClassCF	하나UBS	20150213	401	채권형

주1) 유형체계 :제로인 유형에 의한 분류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설정액 상위 펀드

2014년 1분기 변액보험

변액보험, 자산운용사 펀드성과 하회

변액보험 국내펀드 성과

- 변액보험 국내주식형 펀드** 2015년 1분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 여건 하에 글로벌 증시 모두 강세를 유지했다. 특히, 1분기 한국 기업이익이 4년 만에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신흥국 중 한국으로 외국인의 유동자금이 모이면서 외국인과의 국내 연기금의 주식 순매수세가 형성되며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6.55%, 19.80% 상승했다. 이에 변액보험 국내펀드도 모든 유형에서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 5.31%**
- 변액보험 일반주식펀드** 4월 1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펀드평가사 KG제로인 (www.FundDoctor.co.kr)이 2015년 1분기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변액보험 주식형 펀드수익률은 5.31%를 기록했다. 동 기간 국내주식형 펀드(변액보험 아닌 일반공모펀드)성과와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각각 1.34%p, 1.24%p 하회했다.
- 6.03%**
- 주식형 소유형 기준 일반주식펀드가 6.03% 수익률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일반주식펀드에 비해 주식편입비가 낮은 일반주식(6080)펀드는 5.04% 상승했다. 한국인덱스펀드 또한 5.04%를 기록했으며, 섹터, 테마 등에 투자하는 기타주식펀드가 3.39% 수익률을 기록해 주식형 내에선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다.
- 변액보험 국내채권펀드** 2015년 1분기 동안 전 구간에 걸쳐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며 국내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변액보험 국내채권펀드는 1.81%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액일반채권이 1.86% 수익률로 가장 우수했으며, 중장기채권펀드도 1.65%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 1.81%**

변액보험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주식형		180	192,514	1.47	5.31	0.51	0.59
	일반주식	51	75,183	2.32	6.03	-0.58	1.52
	가치주식	26	28,902	1.29	4.91	-0.97	2.39
	한국인덱스	37	45,898	2.08	5.04	0.83	0.39
	기타주식	9	8,985	1.98	3.39	0.44	-1.96
	일반주식(6080)	25	25,895	2.13	5.04	1.01	3.09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00	197,030	1.52	3.45	1.48	3.49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92	165,798	1.48	3.06	2.24	4.89
	채권알파	17	30,047	1.33	2.41	2.02	3.82
KOSPI				2.78	6.55	1.04	2.79
KOSDAQ				4.15	19.80	13.48	20.11
채권형		154	170,960	0.98	1.81	2.74	6.18
	변액일반채권	82	151,389	1.00	1.86	3.01	6.35
	초단기채권	19	4,698	0.20	0.48	0.94	2.11
	중장기채권	5	7,975	0.94	1.65	2.71	5.75
	우량채권	5	3,872	0.91	1.64	2.72	5.70
KIS채권지수(1년 종합)				0.34	0.73	1.37	3.01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순자산액가중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해외주식펀드 선진국 중심으로 강세

변액보험 해외펀드 성과

해외주식형 1.11%

1분기 해외주식형 펀드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연초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등의 호재로 상승세를 보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합의 및 美 연준의 금리인상 유보 발언이 투자심리를 고무시키며 해외주식형 펀드는 지난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며 변액보험 해외주식펀드는 4.79% 상승했다.

유럽주식펀드 12.63%

ECB의 양적완화 시행으로 유럽주식펀드가 12.63% 수익률로 해외주식펀드 권역별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유럽신흥국주식펀드와 아시아주식펀드가 각각 11.28%, 6.5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남미신흥국주식펀드 -9.95%

반면, 브라질증시가 국가부채비율과 재정수지가 악화되며 남미신흥국주식펀드를 -9.95% 끌어내렸다. 프론티어마켓주식펀드 또한, 글로벌유동자금이 빠져나가며 -2.78%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소비재섹터펀드와 글로벌멀티섹터펀드는 각각 4.21%, 1.14%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글로벌산업섹터 펀드는 -0.48%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글로벌에너지섹터펀드 또한 0.10% 하락하며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액보험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해외주식형		91	26,994	1.11	4.79	9.97	15.72
	글로벌주식	23	7,573	-0.49	2.17	5.14	6.47
	신흥국주식	17	2,763	-1.56	2.78	0.43	6.24
	유럽주식	6	1,146	2.89	12.63	15.16	15.28
	아시아주식	1	218	1.05	6.59	9.58	14.54
	아시아신흥국주식	11	5,786	0.04	4.97	8.52	17.42
	유럽신흥국주식	3	126	0.15	11.28	-2.92	3.38
	EMEA	1	125	-1.02	3.28	2.61	7.02
	프론티어마켓주식	1	25	-2.46	-2.78	-12.72	-3.95
	남미신흥국주식	3	140	-7.27	-9.95	-22.83	-20.19
	일본주식	2	104	2.20	8.61	12.88	22.08
	미국주식	3	1,685	0.27	3.03	12.57	17.52
	중국주식	9	5,765	6.72	9.57	30.04	40.57
	러시아주식	1	14	1.90	18.49		
	글로벌에너지섹터	2	88	-1.83	-0.10	-17.41	-18.71
	글로벌산업섹터	1	67	0.60	-0.48	1.11	4.30
	글로벌소비재섹터	1	897	0.42	4.21	8.73	12.31
	글로벌멀티섹터	5	332	-2.11	1.14	0.46	-1.13
커머더티형		9	446	-2.36	-4.18	-10.27	-15.30
해외주식혼합형		84	33,082	0.82	3.66	5.89	10.44
해외채권혼합형		26	9,541	1.02	3.00	4.60	8.50
해외채권형		40	8,931	-0.10	1.51	1.14	2.82
해외부동산형		2	272	-0.07	1.44	4.17	7.38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이 2주가 넘는 펀드들의 순자산액가중평균 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순자산액 1분기 3.8조원 증가

변액보험 펀드 동향

1분기 변액보험 순자산액
3조 8551억원 증가한
89조 4966억원

펀드평가사 KG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4월 1일 기준으로 변액보험 순자산액을 조사한 결과 89조 4966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연말보다 3조 855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펀드는 기타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순자산액이 증가했으며 해외펀드의 경우 해외채권형과 해외기타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에서 순자산액 증가가 집계됐다.

동 기간 코스피지수(6.55%)와 코스닥지수(19.80%)의 상승과 채권시장의 강세 영향으로 한달 간 국내펀드 순자산액은 3조 1487억원 증가한 79조 1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이 1조 4272억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주식형과 채권혼합형이 각각 7483억원, 5306억원 증가했다.

해외펀드 순자산액은 7064억원 증가한 10조 346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형의 순자산액은 4442억원 증가한 2조 7012억으로 해외펀드 유형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도 각각 2050억원, 669억원 증가했다. 각각 101억원, 76억원 순자산액이 감소한 해외채권형과 해외기타형을 제외하고 해외펀드형 역시 국내펀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형에서 순자산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자산액 기준으로 주식혼합펀드가 전체 변액보험의 28%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채권혼합형 27%, 주식형 24%, 채권 20%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영 KG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2015년04월01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변액보험 시장현황(순자산액 기준)
		12월말	3월말	증감	
주식형	169	185,954	193,437	7,483	
주식혼합형	121	195,557	200,565	5,008	
채권혼합형	127	191,551	196,857	5,306	
채권형	144	156,151	170,424	14,272	
기타	112	30,799	30,217	-582	
국내소계	673	760,012	791,499	31,487	
해외주식형	113	22,570	27,012	4,442	
해외주식혼합형	99	45,045	47,095	2,050	
해외채권혼합형	33	14,274	14,943	669	
해외채권형	55	9,046	8,945	-101	
해외부동산형	2	226	272	46	
커머더티형	11	421	455	34	
해외기타	22	4,822	4,746	-76	
해외소계	335	96,403	103,467	7,064	
전체	1,008	856,415	894,966	38,551	

주1)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 퇴직연금제외.

자료: KG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국내 주식형 1분기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15년04월01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PCA VUL 가치주	736	가치주식	3.33	9.96	4.03	5.51
ING VUL종신 국내주식형	291	일반주식	3.97	9.77	1.24	2.79
PCA VUL 주식형	1,943	일반주식	3.15	9.16	0.97	6.86
ING VUL 주식형	2,798	일반주식	3.71	9.15	1.94	1.19
삼성 변액종신 업종대표알파형	218	일반주식	3.39	8.92	2.63	8.57
한화 VA 성장주식형 II	996	일반주식	3.70	8.72	3.17	8.09
AIA VUL 장기성장주식형	441	일반주식	4.28	8.60	0.47	2.94
신한 VUL&VA Tops프리미엄주식형	2,943	일반주식	3.17	7.96	1.54	3.43
교보 VUL 성장주식형	68	일반주식	4.27	7.93	2.42	0.30

변액보험 국내 주식혼합형 1분기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푸르덴셜 VUL 주식혼합형	534	일반주식혼합	2.55	6.10	2.73	7.43
미래에셋 VA 주식성장형	451	균형자산배분	3.21	6.05	3.61	6.77
푸르덴셜 VA 블루칩혼합형	252	일반주식혼합	2.48	5.90	2.42	6.87
미래에셋 VA 주식혼합형	52	일반주식혼합	3.02	5.57	3.79	6.29
미래에셋 VA 주식혼합형	459	일반주식혼합	2.94	5.55	3.86	7.40
미래에셋 VA 코리아블루칩 혼합자산배분형	559	일반주식혼합	2.71	5.53	2.50	5.18
라이나 VUL 혼합안정형	97	일반주식혼합	1.89	5.37	3.80	
동양 VUL&VA 매스티지주식혼합형	51	일반주식혼합	2.43	5.36	4.10	8.30
푸르덴셜 VUL종신 주식혼합형	1,171	일반주식혼합	2.08	5.20	0.31	4.35
삼성 VUL 그로스50혼합형	293	일반주식혼합	3.25	5.15	2.21	2.83

변액보험 국내 채권혼합형 1분기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미래에셋 VUL 가치주식형	82	채권알파	1.73	7.33	2.04	3.80
신한 VA 안정형	83	일반채권혼합	2.01	4.85	3.63	6.91
미래에셋 변액종신 혼합형	88	일반채권혼합	1.43	4.33	3.60	5.76
KDB VUL종신 혼합안정형(변액종신 보장형)	80	일반채권혼합	1.61	4.31	3.09	5.24
푸르덴셜 VUL종신 롱텀밸류혼합형	573	일반채권혼합	1.41	4.03	1.53	8.14
삼성 VUL종신 배당주혼합형	1,282	일반채권혼합	1.46	4.02	3.66	5.98
ING VA 안정혼합형	513	일반채권혼합	1.89	3.95	0.91	2.34
카디프 거치형VA 구조화펀드3(SF7)	122	일반채권혼합	1.67	3.75	1.42	3.04
푸르덴셜 VA 성장혼합형	3,284	일반채권혼합	1.74	3.69	1.52	4.70

변액보험 국내 채권형 1분기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KDB VUL&VA 채권형	539	변액일반채권	1.06	2.23	3.55	7.48
라이나 VUL 채권형	114	변액일반채권	1.17	2.21	3.28	
메트라이프 VUL종신 채권형	3,965	변액일반채권	1.07	2.20	3.52	7.37
KDB VUL종신 채권형(변액종신 보장형)	58	변액일반채권	1.07	2.15	3.37	6.88
하나 VUL 채권형	104	변액일반채권	1.14	2.15	3.54	7.10
현대라이프 VUL&VA 채권형	66	변액일반채권	1.12	2.10	3.50	6.96
메트라이프 VUL종신 채권형	1,154	변액일반채권	1.03	2.08	3.24	6.76
메트라이프 VUL 채권형	7,683	변액일반채권	1.02	2.08	3.29	6.96
우리아비바 VUL 채권형	133	변액일반채권	1.06	2.06	3.46	7.09
메트라이프 VUL 우량공사채형	919	변액일반채권	1.02	2.05	3.23	6.77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분기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

변액보험 해외 주식형 1분기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15년04월01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메트라이프 VUL 유럽주식형	662	유럽	3.75	15.74	18.78	19.44
미래에셋 VUL 중국본토주식형	317	중국	13.90	12.78	65.74	86.22
흥국 VUL 인베스트동유럽주식형	53	유럽신흥국	-0.51	11.68	-0.07	5.58
미래에셋 VUL 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 주식형	207	아시아신흥국	4.21	9.71	10.13	26.83
PCA VUL A plus 차이나	3,580	중국	7.02	9.54	35.11	48.47
카디프 VUL 봉쥬르차이나재간접형	816	중국	5.57	9.50	19.54	25.02
AIA VUL 일본주식형	59	일본	2.61	9.46	16.20	25.66
AIA VUL 중국주식형	549	중국	6.79	9.39	34.55	48.45
미래에셋 VUL 아시아퍼시픽(AP)컨슈머 주식형	248	아시아신흥국	3.13	8.62	10.16	13.92
신한 VUL&VA 인차이나코펜주식형	88	아시아신흥국	2.19	7.85	8.38	18.02

변액보험 해외 주식혼합형 1분기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KDB VUL&VA 아시아태평양주식혼합형2	229	아시아신흥국	2.00	6.18	8.08	11.21
미래에셋 VUL 아시아태평양Q펀드자산배분형	426	아시아신흥국	2.30	6.04	8.44	15.78
미래에셋 VUL 아시아태평양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274	아시아신흥국	2.33	6.02	8.42	15.76
미래에셋 VUL 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1,686	아시아신흥국	2.22	5.71	7.03	12.61
교보 VUL 일본혼합형 II	67	일본	1.30	5.60	9.47	15.72
미래에셋 VUL 코친디아포커스7자산배분형	2,035	아시아신흥국	1.62	5.58	6.97	13.13
미래에셋 VUL종신&변액C종신 아시아태평양주식안정성장자산	421	아시아신흥국	1.88	5.38	7.43	12.52
미래에셋 VUL 친디아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2,822	아시아신흥국	1.78	5.35	10.14	16.46

변액보험 해외 채권혼합형 1분기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1분기	6개월	1년
미래에셋 VA 아시아퍼시픽컨슈머주식안정자산배분형	1,894	아시아신흥국	1.53	3.67	4.91	9.19
미래에셋 VA 아시아태평양Q펀드자산배분형	285	아시아신흥국	1.44	3.51	5.05	8.61
미래에셋 VA 친디아안정자산배분형	2,754	아시아신흥국	1.27	3.50	5.90	10.70
한화 VA 팬유러피안혼합형 II	74	유럽	0.96	3.39	3.74	6.45
미래에셋 VA 코친디아포커스7주식안정자산배분형	774	아시아신흥국	1.09	3.30	4.85	9.21
삼성 VUL&VA 글로벌혼합형	353	글로벌	0.86	3.02	4.06	7.72
ING VUL 해외혼합성장형	243	글로벌	1.18	2.90	1.52	2.03
삼성 VUL종신 글로벌혼합형	71	글로벌	0.82	2.85	3.90	7.39
미래에셋 VA 차이나안정자산배분형	404	중국	1.22	2.81	4.85	8.26
하나 VA 글로벌혼합형	262	글로벌	0.95	2.68	5.12	8.38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분기 수익률순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